

논문투고일 : 2008. 9. 2.

심사완료일 : 2008. 12. 10.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례로 본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

서 원 주

영국런던대학교 박사과정

I.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개요

1. 지역박물관의 문제와 대책위원회의 구성
2. 프로젝트 권역의 설정과 예산의 투입

II.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교육적 성과

1. 시범박물관의 교육적 성과 향상을 위한 실천사례
2. 레스터대학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연구보고
3. 지역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과 교육적 의미

III. 결론 및 시사점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례로 본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

서 원 주

I.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개요

1. 지역박물관의 문제와 대책위원회의 구성

“르네상스(Renaissance)”는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박물관에서의 학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하여 전례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국의 지역박물관들은 더욱 많고 다양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소장품을 최대로 이용하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거두게 된 영국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¹⁾

* 이 논문은 제2회 한국박물관대회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회의(2008년 5월 17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본 영국의 박물관교육」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1) 영국의 공식 국가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sland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독립된 4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동만 1996: 26). 각 지방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영국’이라는 국가에 편입된 시기도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영국은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사회, 교

1990년대 말에 잉글랜드의 지역박물관들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자원이 부족하고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이 미비하여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²⁾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이 점을 파악한 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12월, 문화매체체육부(DCMS) 장관 이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잉글랜드 내 지역박물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박물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매튜 에반스(Matthew Evans)를 의장으로 한 이 전문위원회는 2001년 1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에 잉글랜드 지방 지역박물관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내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역의 부흥: 잉글랜드 내의 박물관을 위한 새로운 비전(Renaissance in the Regions: a new vision for England's museum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역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한 19세기의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20세기에 박물관은 지식과 즐거움의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박물관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 박물관 및 미술관은 교육과 학습, 접근, 사회통합, 지역과 공공 서비스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역박물관들이 그 지역 내 다른 박물관의 모범이 되고 대학 및 국립 박물관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과 공간은 학습과 감화, 즐거움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용을 위하여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Matthew Evans 2001: 5)

2. 프로젝트 권역의 설정과 예산의 투입

2001년에 발간된 위의 보고서의 명칭을 따라 2002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각 지역박물관들이 더 많은 관람자를 끌어들이고 학교, 지역사회 및 개인학습자들

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박물관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 2) 영국 4개 지방의 전체 인구는 2008년 현재 61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1에 달한다. 특히 런던의 인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756만 명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1985년과 2000년 사이의 수도권의 1인당 GNP는 지방에 비하여 6배나 높게 나타났다(배준구 2003).

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박물관의 소장품 가치를 최대로 이용하고 박물관 직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르네상스(부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영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원 협의회(MLA)’ 회장인 마크 우드(Mark Wood)를 의장으로 하고 영국 박물관협회, 영국 박물관장회의, 문화매체체육부(DCMS), 교육기술부(DfES)³⁾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프로젝트에 참가할 지역별 시범박물관을 선정하였다.

-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한 준비정도 및 시범박물관으로서의 자질
- 기존 지원금 지급기관의 지원 내역
- 박물관 소장품의 수
- 지역의 고립도 및 결핍도 (지역이 고립되고 박물관을 방문할 여건이 열악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지역박물관의 관람객 수
- 지방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및 적합성



<그림 1>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잉글랜드 9개 권역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잉글랜드는 런던을 포함한 9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각 권역별로 너댓 곳의 시범박물관이 선정되었다.⁴⁾ 각 권역 내의 시범박물관들은 ‘허브(Hub)’라는 명칭의 권역 ‘시범박물관연합’을 구성하였다.⁵⁾ 이 허브에 속한 시범박물관을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권역 내의 다른 박물관에 모범이 되고 그들을 교육하는 시범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허브에 속한 시범박물관들은 전시물의 선택이나 전시,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수집 관리에 이르

3) 2001년 프로젝트 착수 당시에 관련기관이던 교육기술부(DfES)는 2007년 내각개편 이후에 부처가 양분되어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와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로 나뉘었다. 현재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업무는 아동학교가족부(DCSF)와 협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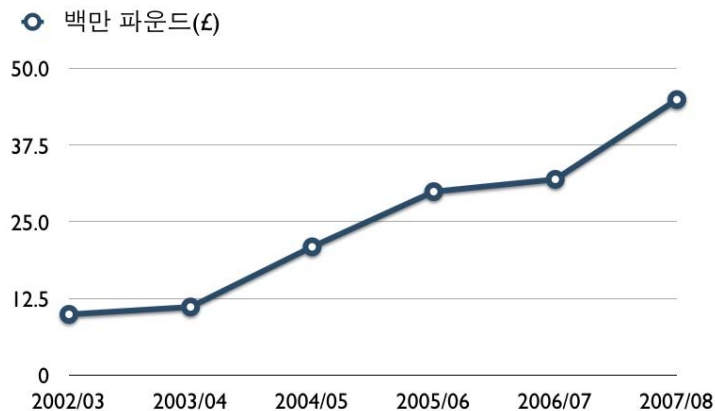
4) 잉글랜드 지방의 9개 권역은 다음과 같다.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West Midlands, East Midlands, Yorkshire, North East, North West.

5) 동부 미들랜드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브(Hub)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까지 박물관의 모든 업무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 각 허브(Hub)에 속한 시범박물관 중에서 보통 하나의 박물관이 해당 권역 안에서의 활동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선도박물관(lead body)’으로서 위임되었다.

영국 문화매체체육부(DCMS)와 ‘영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원 협의회(MLA)’의 주관 아래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박물관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및 학습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약 3천3백억원(1억5천만 파운드)의 문화매체체육부(DCMS)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 약 2천9백26억원(1억3천3백만 파운드)이 각 지역박물관에 지급되었다.⁶⁾ 그 중에서 약 9.8%에 해당하는 286억원(천3백만 파운드)이 런던에 있는 지역박물관에 지급되었고, 2천6백4십억원(1억2천만 파운드)이 지방의 지역박물관에 지급되었다. 이 지원금은 2단계에 나누어서 지급되었는데, 동북부, 남서부 및 서부 미들랜드 등 3개 권역의 박물관들이 제1단계(Phase 1)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역의 부흥』보고서에서 권고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았다. 나머지 6개 권역(런던, 요크셔, 북서부, 동부 미들랜드, 동부 잉글랜드 및 남동부)은 제2단계(Phase 2)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지원금 총액의 30%정도)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박물관들은 직원 수를 확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표 1〉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투입된 중앙정부의 연간 예산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배정된 중앙정부의 지원금 액

6) 환율은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1파운드당 2,200원으로 계산하였다.

수는 2002년 시작 이래 해마다 증가해왔고 2007-8회계년도에는 5년 사이에 그 규모가 400%가량 증가하였다(MLA 2006a: 15). 2007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지원금 누진 수령총액은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등록된 박물관의 수에 따라서 권역별로 균등한 비율에 의해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따라 권역 내 박물관 수에 관계없이 차등지급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부유한 남동부 권역은 권역 내에 265개의 박물관이 등록되어 있지만 천4백3십만 파운드를 지원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서부 미들랜드 권역은 박물관의 수가 140개로 남동부 권역의 반수에 지나지 않지만 지원금은 2천4백2십만 파운드로 오히려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였다.

<표 2> 권역별 허브박물관과 박물관 수 및 중앙정부 지원금 (MLA, 2006a)

지원금: 백만 파운드(£)

권역	시범박물관(허브)	등록 박물관 수	지원금
동부 미들랜드 권역	* Derby Museums and Art Gallery * Leicester City Museums Services * Leicestershire Museums Service * Lincolnshire Museums Services * Nottingham City Museums and Galleries	98	8.1
동부 잉글랜드 권역	* Colchester Museums * Fitzwilliam Museums, University of Cambridge * Luton Museum Service * Norfolk Museums and Archaeology Service	164	11
런던 권역	* Geffrye Museum Trust * Horniman public Museum and Public Park Trust * London's Transportation Museum * Museum of London	125	13
북동부 권역	* Beamish, the North of England Open Air Museum * The Bowes Museum, County Durham * Hartlepool Museums * Tyne and Wear Museums	67	16.5
북서부 권역	* Bolton Museum and Art Gallery * Harris Museum and Art Gallery, Preston * Manchester City Galleries * Tullie House Museum and Art Gallery, Carlisle * University of Manchester Museums and Galleries: Manchester Museum and Whitworth Gallery	157	12.2
남동부 권역	* Chatham Historic Dockyard Trust * Hampshire county Museums and Archives Services * Oxford University Museums * The Royal Pavilion, Libraries and Museums,	265	14.3

	Brighton and Hove		
--	-------------------	--	--

권역	시범박물관(허브)	등록 박물관 수	지원금
남서부 권역	* Bristol's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 Plymouth City Museum and Art Gallery * Royal Albert Memorial Museum and Art Gallery, Exeter * Royal Cornwall Museum, Truro * Russell-Cotes Art Gallery and Museum, Bournemouth	228	23.2
서부 미들랜드 권역	* Birmingham Museums and Art Gallery * The Herbert, Coventry * Ironbridge Gorge Museum Trust, Telford * The Potteries Museum and Art Gallery, Stoke-on-Trent Museums	140	24.2
요크셔 권역	* Bradford Museums, Galleries and Heritage * Hull Museum * Leeds Museums and Galleries * Sheffield Galleries and Museums Trust * York Museums Trust	163	10.4
총계		1407	132.9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끼친 영향을 방문객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3백50만 명에 이르는 16세 이하의 아동들이 시범박물관을 방문했으며, 120만 명의 학생들이 박물관 활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43만 명 이상의 영국 내 소수인종이 시범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이는 2002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물관 내부적으로는 7천명 이상의 박물관 직원들이 시범박물관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고, 2008년까지 시범박물관에서만 580명 이상의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었으며, 이 중 188명이 학예직이었다(MLA, 2006a).

II.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교육적 성과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교육성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시범박물관들이 어떻게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가면서 주민들의 박물관 관람을 장려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범박물관의 교육적 성과 향상을 위한 실천사례

가. 하틀풀 박물관(The Museum of Hartlepool)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있는 하틀풀 시는 인구 9만여 명의 작은 항구도시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업이 번창했던 이 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군함 생산을 저지하기 위한 독일의 계속된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종전 후 급속히 쇠락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조선소가 폐쇄되고 80년대에 이르러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 도시 부두에 있는 건물을 개조하여 조성된 하틀풀 박물관(The Museum of Hartlepool)의 경우 동북부 티즈 벨리(Tees Valley)지역에 있는 폐점한 상점들을 빌려 털이 난 물고기나 세계에서 제일 작은 고양이와 같이 특이한 사물들을 전시하는 '신기한 가게(Curiosity shop)'라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인구 10만 내외의 중소도시인 하틀풀, 미들즈버러, 스톡튼, 레드카 및 달링튼에서 폐점한 상점들을 임대하여 순회전시를 한 결과 2005년 한 해 8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총 13만명 이상이 관람했다(MLA 2006a: 8). 이는 해당 도시인구 총합의 1/4이 이동박물관을 관람한 셈이며, 그 중 10%의 관람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물관 전시를 관람한 경우였다. 또한 전체 방문자의 80%는 이 경험으로 인해 다른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어졌다고 응답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우선 박물관에 방문하기를 꺼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상가에서 전시를 했다는 점과 박물관에 대한 일반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신기한' 유물을 위주로 전시를 기획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나. 맨체스터 박물관(The Manchester Museum)

맨체스터는 잉글랜드 중북부에 있는 도시로 인구 규모로는 런던에 이은 영국 제2의 도시이다. 맨체스터는 산업혁명 기간 동안 방적공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업화된 도시가 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공영 철도 역시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에 건설되었다(Davies 1999).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맨체스터로 유입되었고 2007년 현재에도 높은 외국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맨체스터 인구의 71%만이 백인 영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맨체스터에는

유태인을 비롯하여 남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소수인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다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맨체스터 박물관(The Manchester Museum)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망명자들을 초대하여 박물관이 소장한 세계 각국의 유물을 각 개인이 겪은 경험에 따라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MLA 2006a: 8). 이러한 시도는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토착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유물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전시를 기획하도록 한 시도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이자 경제·정치적으로 소외계층인 외국인 망명자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유물을 재해석하고 전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왕립 알버트공 기념 박물관(Royal Albert Memorial Museum)

엑시터(Exeter) 시가 위치한 데본(Devon) 주는 잉글랜드 남서부의 농업지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다.⁷⁾ 영국에는 서기 43년부터 로마인들이 침략하기 시작했는데(Palliser 2000), 데본 지역에는 서기 50년 경 부터 약 250년간 로마군대가 주둔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로마군의 병영 같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역사·지리적 배경을 고려하여 엑시터 시의 '왕립 알버트공 기념 박물관(Royal Albert Memorial Museum)'은 데본 주의 벽지 학교 12곳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영상 회의 시설을 설치하여 '로마인과 시민의식'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였다(MLA 2006a: 8). 로마 통치하의 영국사는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교육 역시 최근 영국 정부가 교육내용으로 강조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업지역에서 벽지 학생들이 멀리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지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과정을 다룸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적 효과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 레스터대학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연구보고

7) 2007년 기준으로 데본 주에는 6,710km²의 면적에 11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평방킬로미터당 169명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런던의 4,806명이나 서부 요크셔 주의 1,075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영국 통계청이 구분한 영국 48개 인구지역 중에서 5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위와 같은 시범박물관의 개별적 사례 이외에도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교육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국 레스터대학 박물관미술관학연구소(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RCMG)에서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박물관을 방문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반적 학습성과(Generic Learning Outcome: GLO)’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 개념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박물관교육성과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RCMG 2004: xvii; MLA 2006b: 6).

첫째,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둘째, 기술(Skills)

셋째, 태도와 가치(Attitudes and Values)

넷째, 즐거움, 감화, 창의력(Enjoyment, Inspiration, Creativity)

다섯째, 활동, 행동, 향상(Activity, Behaviour and Progression)

2003년에 실시한 1차 연구에서는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1단계(Phase 1) 대상인 잉글랜드 내 3개 권역 36개 박물관에서 교사 936명과 학생 20,604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중 6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지역박물관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 학습성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학습성과”에 대한 각 항목별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교사들의 일반적 학습성과 항목별 중요도 평가 (RCMS, 2004: xvii)

일반적 학습성과	교사들의 중요도 평가 (%)
즐거움, 감화, 창의력	81
지식과 이해	72
태도와 가치	58
활동, 행동, 향상	57
기술	44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교사들은 박물관 방문을 통한 학습성과 중에서 즐거움과 감화를 받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분야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역시 그와 동등한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태도와 가치, 활동과 행동에 대한 항목과 특히 박물관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6-11세)들의 94%는 박물관 체험이 즐거웠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90%는 새로운 것을 배웠고, 87%는 방문이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⁸⁾ 중·고등학교 학생(11-18세)의 경우에는 박물관 방문에 대한 흥미도가 초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들의 87%는 박물관에서 흥미 있는 것을 배웠다고 응답하였고, 82%는 박물관이 학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73%의 학생들은 박물관 방문을 통하여 많은 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학생의 55%가 박물관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58%의 학생들이 박물관 방문을 통해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이다(RCMG 2004: xxi).

2005년에 실시한 2차 연구에서는 잉글랜드 9개 권역 전체의 69개 박물관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643명의 교사와 26,7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다음, 다시 31명의 교사와 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3년의 1차 연구 이후 2년 만에 학생들의 박물관 이용률이 40%가량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중 전체 지원액의 70%가 투입된 제1단계 지원대상 박물관에서는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2단계 지원대상 참여한 박물관에서는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수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방문한 학교의 수 자체는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 매년 9월 및 10월에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 수 (RCMG, 2006b: 7)

연도별 방문 학생 수	2003	2004	2005	2003/05 대비 증가율
1단계 지원대상 박물관	49,838	102,247	106,368	47%
2단계 지원대상 박물관	45,802	58,763	58,974	29%
1,2단계 지원대상 박물관 총합	95,640	161,010	165,342	40%

위의 연구에 따르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박물관을 이용한 교사들이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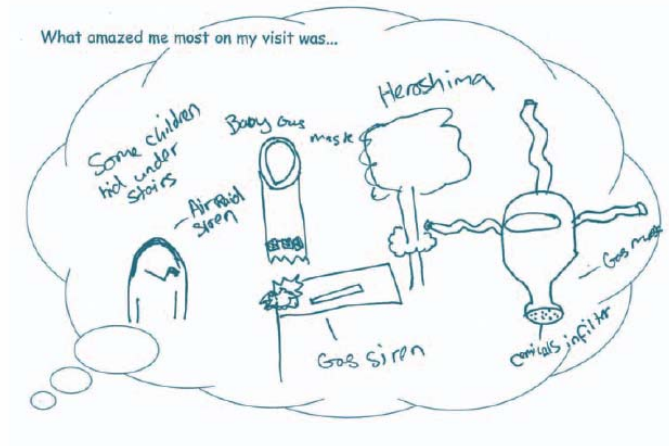
8) 영국의 경우 학년제도가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국의 학년제도는 5세 준비반을 시작으로 16세의 11학년까지 12개 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2개 학년을 다시 주요단계(Key Stage) 1, 2, 3, 4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대략적으로는 영국의 주요단계1(KS1)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주요단계2는 초등학교 고학년, 주요단계3은 중학교, 주요단계4는 고등학교 과정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물관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RCMG 2006). 또한 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박물관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는 학습의 종류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중에서도 인종 문제 및 사회·경제적 결핍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통합에 중점을 둔 현 노동당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의 2차 연구(RCMG 2006: 16)에 따르면 초등학생(KS2)의 경우 93%가 박물관 방문이 즐거웠다고 응답했고, 90%가 흥미로운 내용을 새로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80%가 그날 박물관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하였고, 86%가 박물관이 재미있는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중학생(KS3)의 경우 역시 박물관 방문이 즐거웠으며(86%)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배웠다고(85%) 응답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박물관 방문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응답을 했는데, 83%가 박물관이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기관이라고 했으며, 71%가 박물관 방문이 특정 과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또 68%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방문이 학업에 자극이 되었다고 각각 응답하였다.

3. 지역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과 교육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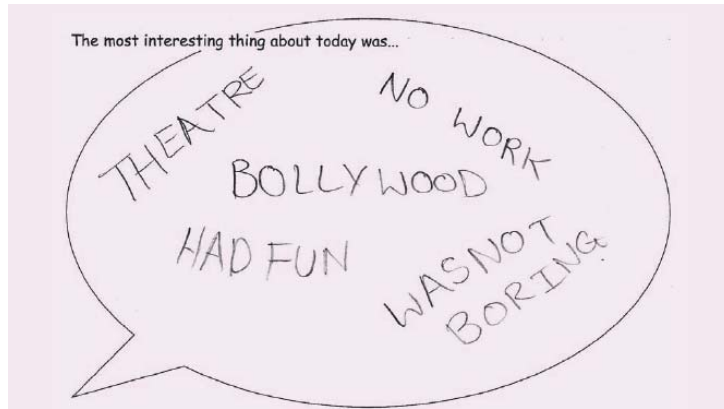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 개인의 반응을 살펴보면 각 개인별로 다른 종류와 수준의 학습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코벤트리(Coventry)에 있는 '허버트 미술관·박물관(Herbert Art Gallery and Museum)'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시를 관람한 초등학생 닐람(10세)의 경우 "박물관에서 본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가스마스크와 가스경보기, 공습경보기 및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버섯구름을 그린다음 공습 때 어린이들이 계단 밑에 숨어있었다는 점이었다고 응답하였다(MLA 2006b: 〈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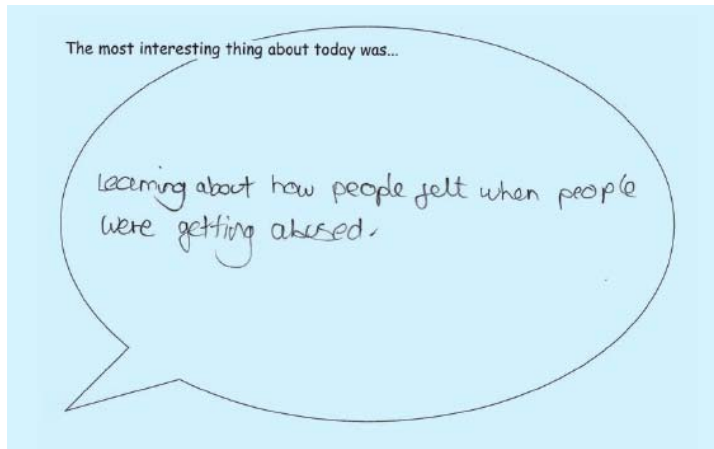
<그림 2> “박물관에서 본 가장 신기한 것” (닐람 10세)

닐람이 작성한 위의 응답지를 살펴보면, 가스마스크가 어떻게 유독화학을 걸러내는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이 터진 도시의 이름(히로시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닐람은 박물관 방문을 통해 가스마스크의 작동 원리나 공습시 대피요령 같은 전시 상황에 대한 개별적 지식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새로 학습하였거나 기존의 지식을 재확인 또는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전시를 관람한 초등학생 대런(11세)의 경우 “오늘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극장”과 “볼리우드 영화”를 적고 그 이외에 “공부 안해도 됨”, “잘 놀았음”, “지루하지 않았음” 등 박물관 방문 자체에 대해 자신이 직접 느낀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하였다(MLA 2006c: <그림 3> 참조). 이러한 반응 역시 박물관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대런은 박물관에서 극장이나 영화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이 공부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즐겼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생들이 박물관 경험에서 얻은 흥미나 유쾌한 반응들은 앞서 언급한 “일반적 학습성과(GLO)”의 개념 중에서 “즐거움, 감화, 창의력”의 항목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오늘 가장 흥미 있었던 것” (대런 11세)



<그림 4> “오늘 가장 흥미 있었던 것” (소비아 12세)

중학생인 소비아(12세)의 경우 흑인의 역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런던 박물관(Museum of London)을 방문하였는데 “오늘 가장 흥미 있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이 학대당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배웠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하였다 (MLA 2006c: <그림 4> 참조). 그러나 이 답변에는 박물관 방문을 통한 소비아의 경험이 얼마나 큰 심리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짧은 응답을 통하여 소비아가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흑인에 대한 감정적 소통을 함으로써 피억압자들의 감정을 파악하게 되었거나 이러한 감정에 대한 그의 이해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종차별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 같은 주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적인 고찰을 통해 어떻게 중앙정부가 지역 박물관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성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중앙정부가 지역박물관의 활동을 지원한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박물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박물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지역박물관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노력이다. 영국 정부는 각 지역박물관이 해당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육기회의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하는 박물관 지원정책을 펴므로써 지역간의 문화교육적 기회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방,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 구성원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일수록 박물관의 문화·교육적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박물관들은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박물관이 주민들의 문화·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박물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국의 경우, 지난 6년간에 걸쳐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박물관에 지원된 막대한 액수의 중앙정부 지원금(3천3백억원)으로 각 지역박물관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해당 지역사회의 교육여건과 사회통합이 증진되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지역박물관들은 더욱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그 소장품을 교육적 목적에 맞추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이다. 1997년에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지방박물관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한 후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2001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2년 이후 전

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시범박물관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다.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권역 내 '시범박물관연합(Hub)' 제도인데, 이 시범박물관연합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각 권역별로 몇 곳의 시범박물관을 선정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설과 수준이 향상된 시범박물관이 다시 권역 내의 다른 박물관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단계적인 지원 방식이다. 둘째, 각 시범박물관들이 자체적으로 그 권역의 실정과 필요에 맞는 박물관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는 점이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일일이 파악하여 각 지역박물관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 역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권역 내에서 시범박물관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이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여, 다시 이 시범 박물관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권역 내의 다른 박물관을 지원하는 효과적 방식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 간 경제규모 및 문화시설의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울 등 광역도시에 위치한 유명 박물관과는 달리 지방 도시의 박물관은 그 위상과 시설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방 대도시에 위치한 박물관들조차 그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90%가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한다는 연구결과(권영득 2007)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지역박물관들은 그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환경이 더욱 제한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한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박물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기회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 별첨 ■

한영 용어 대조표⁹⁾

한국어	영어
가치	value
감화	inspiration
권역	Region
기술	skill
선도박물관	leading body
시범박물관	flagship museum, hub museum
시범박물관 연합	Hub
영국 교육기술부	DfES
영국 문화매체체육부	DCMS
영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원 협의회	MLA
영국 아동학교가족부	DCSF
영국 혁신대학기술부	DIUS
이해	understanding
일반적 학습성과	Generic Learning Outcome(GLO)
제 1단계	Phase 1
제 2단계	Phase 2
주요단계	Key Stage(KS)
즐거움	enjoyment
지식	knowledge
지역박물관	regional museum
창의력	creativity
태도	attitude
행동	behaviour
향상	progression
활동	activity

9) 이 논문에 사용된 용어들은 영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영어 표현 및 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많다. 번역을 달리한 다른 한국어 연구와 비교하거나 원자료에 접근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 사용된 한국어 용어와 그에 상응하는 영어용어를 표기하였다.

■ 참고문헌 ■

- 권영득, 2007.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례로 본 박물관 활성화 방안연구」, 『박물관교육연구』. 창간호. 9-28.
- 박지향, 199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글방.
- 배준구, 2003. 「프랑스·영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나라경제』. 4월호. 55-58.
- 한동만, 1996. 『영국 그 나라를 알고 싶다』. 서울: 서문당.
- Davies, Norman, 1999. The Isles: A History, London: Macmillan.
- Evans, Matthew, et al., 2001. Renaissance in the Regions: a new vision for England's museums,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Kingshurst Consulting Group, Anne Murch and Associates and Gaby Porter and Associates, 2005. Review and Consult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Renaissance in the Regions: A Report for MLA (Part One), Unpublished Report.
- Palliser, D. M., 2000. 「The Origins of British Towns」, in D. M. Palliser, ed., 『The Cambridge Urban History of Britain』,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RCMG), 2004. What did you learn at the museum today? (First Study):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e Renaissance in the Regions Educational programme in the Three Phase in 1 Hubs (August, September and October 2003),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 2006a. What did you learn at the museum today? (Second Study): Evaluation of the outcome and impact of learning through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me Delivery Plans across nine Regional Hubs (2005),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 2006b. What did you learn at the museum today? (Second Study): Evaluation of the outcome and impact of learning through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me Delivery Plans across nine Regional Hubs (2005), Exclusive Summary,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MLA), 2006a. A Pocket Guide to Renaissance: A ground-breaking investment in England's regional museums,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 2006b. What Amazed me Most at the Museum Today...: The Impact of Museum Visits on Pupils at KS2,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 2006c.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t the Museum Today Was...: The Impact of Museum Visits on Pupils Aged 11-18 Years, Londo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국문요약 ■

르네상스(Renaissance)는 영국 중앙정부가 잉글랜드의 지역박물관을 지원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박물관에서의 학습을 증진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DCMS)'와 '영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원 협의회(MLA)'가 주관해온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잉글랜드 9개 권역의 지역박물관들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3천3백억원(1억5천만 파운드)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권역내 '시범박물관연합(Hub)' 제도이다. 시범박물관연합 제도는 각 권역별로 시범박물관을 선정 한 뒤에 이들을 하나의 '허브(Hub)'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설과 수준이 향상된 허브의 시범박물관들이 다시 권역 내의 다른 지역박물관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형식이다. 이를 통해 각 권역의 시범박물관이 그 지역의 실정과 필요에 맞는 박물관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만 3백50만 명에 달하는 16세 이하의 아동들이 시범박물관을 방문했으며, 120만 명의 학생들이 박물관 내의 활동에 참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05년에 영국 내 소수인종의 박물관 방문 역시 2002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였다. 박물관 내부적으로는 2008년 현재 6년간 시범 박물관에만 580명 이상의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었고, 7천명 이상의 지역박물관 직원들이 허브박물관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지역박물관들은 그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박물관 관람을 장려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했다. 영국 레스터대학 박물관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박물관을 방문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90%가량이 박물관 방문이 즐거웠고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박물관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각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수준에서 지적, 정서적 학습이 일어난 것도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 간에 경제 및 문화시설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도시의 박물관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박물관이 주민들의 문화·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박물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한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정부와 박물관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르네상스 프로젝트, 영국, 지역박물관, 시범박물관, 시범박물관연합(Hub), 교육

■ ABSTRACT ■

The Renaissance Project and Educational Outcomes of Regional Museums in England

Suh, Wonjoo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educational outcomes of the Renaissance project in England and to present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n context. The Renaissance project was implemented by the British government in order to enhance learning from museum experiences and embrace minority groups by supporting and re-generating regional museums in England. From 2002 to 2008, DCMS and MLA have injected 150 million Pounds to museums in nine regions in England. The core concept of the project is the 'Hub' which is a network of the 'flagship' museums in the region.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intensively supports flagship museums in that region. Then, the flagship museums, whose facilities and standard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rough the project, help other museums in the region by training staff and supporting programme development. This way, the flagship museums have improved their facilities and developed education programmes which are suitable for their context. As a result of the project, 3.5 million students under 16, visited 'hub museums' and 1.2 million students attended museum programmes between 2005 and 2006. In 2005, the number of museum visit of the ethnic minority groups increased 18% in comparison to that of 2002. Within museums, over 580 new members of staff were recruited and over 7,000 museum staff were trained in hub museums. Throughout the project, regional museums tried to encourage local people to visit museums and enhance educational outcomes from their museum visit. According to the research by RCMG of University of Leicester, about 90% of KS2 and KS3 students responded that their museum visit was enjoyable and helpful for their school work. Besides, over 50%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ir educational motivation was improved after their museum visit. It was found that intellectual and emotional learning occurred in

various dimensions as a result of their museum experience. In Korea, there is also a severe disparity in economy and cultural facilities among various regional area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to support the regional museums in order to enable them to design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mes which meet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needs of the locals. The Renaissance project which preferentially supported museums in the deprived regions in order to improve cultur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of the region would be a good example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museums.

【key words】 Renaissance project, England, regional museums, flagship museum, Hub, education